

이달의 초점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 이다미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

| 정세정·신영규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 고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in 10 Countries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4년 de la Porte 외(2023)의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때 기후변화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세대 간 정의가 주요 화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중심으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한다. 한국인들은 기후변화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층의 위험 인지 수준도 상당히 높은 가운데, 탄소 저감 정책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은 고령층보다 더 짙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인들은 소비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 추세를 늦추는 것에도 우호적이다. 모든 세대가 고령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자들 자신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변화 노력에도 적극적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토양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들어가며

올여름도 무더울 것 같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1960년대 이래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¹⁾ 기후변화는 명실상부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현실적 위협이 됐다. 예컨대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여름철 온도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라는 수사가 매해 반복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상청은 이번 여름 폭염을 예고했다. 2024년 8월 12일 기준 서울의 2024년 열대야 일수는 26일로, 역대 최장 열대야 일수 32일인 2016년과 6일 차이에 불과하다.²⁾ 7월 열대야 일수가 2016년보다 길고, 8월도 중순임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 같다.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작년(2023. 5. 20.~9. 30.) 한국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2818명(추정 사망자 32명 포함)으로, 2021년 1376명(추정 사망자 20명 포함), 2022년 1564명(추정 사망자 9명 포함)보다 증가하였다.³⁾ 2024년 8월 13일 현재 기준(2024. 5. 20.~8. 11.) 온열질환 사망자는 2293명(추정 사망자 21명 포함)으로, 작년 같은 날 온열질환 사망자 2130명(추정 사망자 28명 포함)보다 많다.⁴⁾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후변화는 사회 체계의 전방위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국가가 대응하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다르다(Johansson, et al., 2016). 전후 표준화된 임노동 체계에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노령, 장애와 같은 소득 상실에 따른 위험(구사회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통적 임

노동 관계는 세계화와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와해되었고, 종전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 비정형 노동의 확산, 돌봄 공백 등의 위험(신사회위험)에 대응할 필요를 늘렸다. 구사회위험보다 신사회위험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정의된 두 위험은 모두 노동과 복지 체계 안에서의 변화이다. 기후변화는 이와 다르다. 노동·복지 체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변화이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누구에게 야기할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체계를 뒤엎는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Johansson et al., 2016).

그리고 전면적인 복지국가의 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세대 간 정의가 주요하게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Gibbons, 2014; Gonzalez-Ricoy and Rey 2019; Page, 1999, 2007, 2008; Schuppert, 2011; Sanson and Burke, 2020).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로, 과거 그리고 현 세대가 초래한 변화가 미래세대에 가중되어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저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세계적 지도자들이 젊은 세대들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이

1) 미국 해양대기청. (n.d.). Trends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CO2). https://gml.noaa.gov/ccgg/trends/gl_gr.html, <https://gml.noaa.gov/ccgg/trends/global.html>

2) 기상자료개방포털. (n.d.). 열대야일수. <https://data.kma.go.kr/climate/tropicalNight/selectTropicalNightChart.do>

3) 질병관리청. (n.d.).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205030102&bid=0004&&cg_code=C01

4) 질병관리청. (n.d.).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205030102&bid=0004&&cg_code=C01

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기성세대의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정의가 중요하다면 정책적 대응 마련에서 세대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측면에서 이 글은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와 그와 관련된 정책,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령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 검토함으로써 세대 간 합의에 기초한 정책적 개입의 실마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때 10개국 시민들의 인식과 비교하여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식에서 구별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인식과 비교 분석하면 한국인의 인식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을 더욱 분명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de la Porte 외(2024)의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 조사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펜하겐경영대학원, 토리노공과대학교, 서섹스대학교, 로스킬레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시민(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 2만 18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였는데, 이 중 한국인은 2004명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비교 맥락에서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술적으로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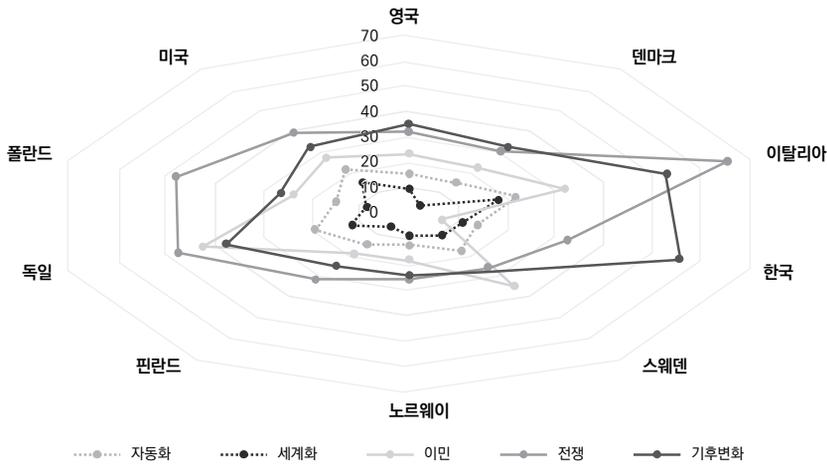
2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연령별 비교

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한국인은 기후변화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한다. 척도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비중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갤럽, 2022; 황주연 외, 2023).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동화와 세계화, 이민, 전쟁과 같은 다른 어떤 위협 요소보다 기후변화를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 사회에서는 주요 위협으로 다뤄지는 이민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 한국인의 약 7%만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약 55%가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조사 대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큰 비중이다. 우리와 같은 반도 국가로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에 노출된 이탈리아인들보다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복지국가 환경 변화와 시민 인식: 주요 사회문제를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단위: %)



주: 각 사회 문제에 대해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모름은 별도 범주로 구분하여 질문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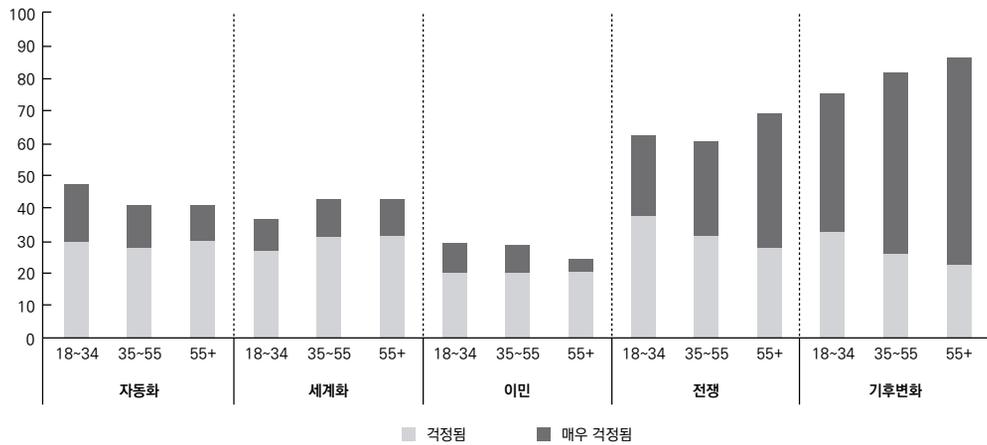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전 연령에서 한국인들은 기후변화를 다른 문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전쟁과 더불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 변화 중에서도 기후변화를 고령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점이 흥미롭다. 사실 한국의 고령자들은 젊은 층보다 전쟁의 경험을 가깝게 인식하여 전쟁을 큰 위협 요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기후 위기 역시 상당

한 위협 요소로, 거기다 전쟁보다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점은 생경하다. 최근에 진행된 기존 유사 조사들에서도 50, 60대가 30대를 비롯한 젊은 층보다 기후변화를 걱정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어(갤럽, 2022; 황주연 외, 2023) 한국 고령층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달리 다른 나라는 <표 1>에서처럼 대개 3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현재보다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처럼 우리와 같이 기후변화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림 2] 한국인의 연령별 주요 사회 변화에 대한 우려

(단위: %)



주: 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된다' 혹은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1]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연령 집단별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2.887	1.024	16.38***	B(A, C)	3.168	0.877	21.49***	A(B, C) B(C)
35~54(B)	2.789	1.082			3.369	0.852		
55+(C)	2.868	1.082			3.481	0.776		

*** p<0.001, ** p<0.01, * p<0.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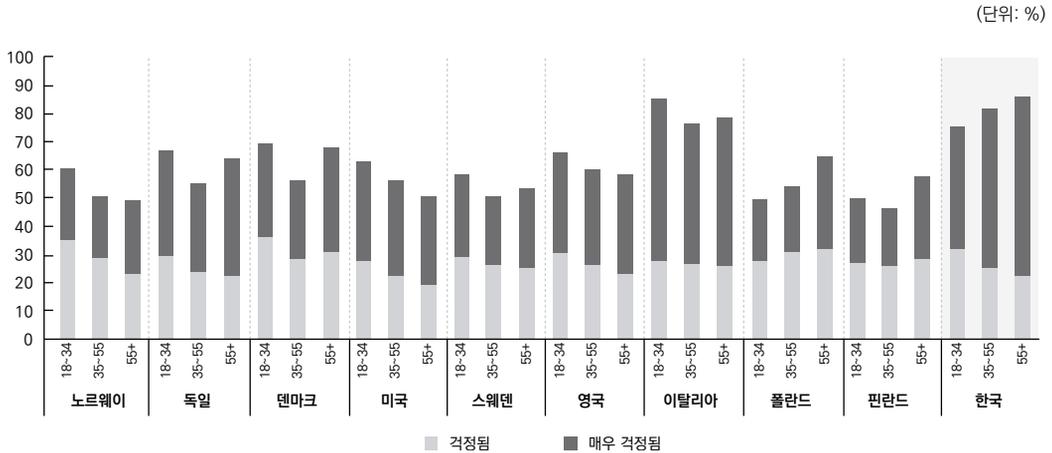
주: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로 인식하는 이탈리아도 5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기후변화를 더 걱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청년들이 기후변화를 덜 걱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평균적인 위기 의식이 높은 것은 물론 한국의 청년들도

[그림 3] 10개국 시민의 연령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주: '기후변화가 걱정된다' 혹은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이탈리아의 청년을 제외한 다른 조사 대상국의 청년들보다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 한국의 청년층이 고령자들보다 기후불안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채수미 외, 2024). 상대적으로 한국인 중 고령자들보다는 기후변화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청년층 역시 이를 심각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겠다. 다만 연령에 따른 상대적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나.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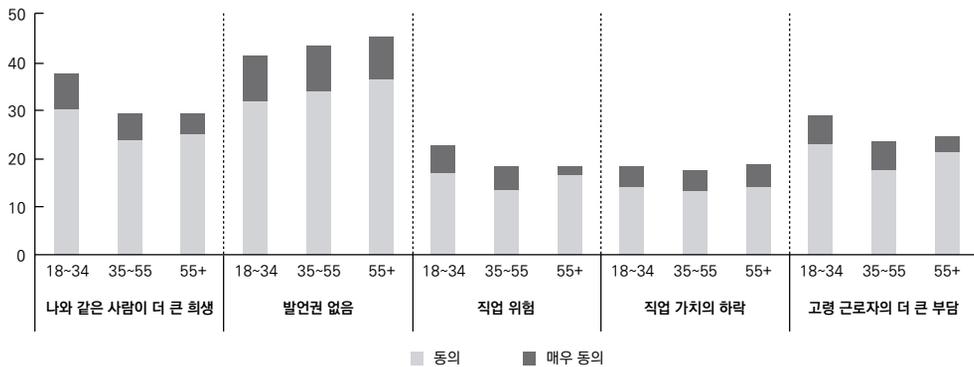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 노력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대체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탄소 감축 정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명제에 대해서만 다소 영향력을 작게 인식한 것 이외에는 모두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 영향력을 크게 인식한다. 앞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과도 같다.

〈표 2〉부터 〈표 6〉까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에 관해서도 연령에 따라 인식이 상이하다. 먼저 한국인들은 전 연령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제와 해당 정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중이 크다. 다만 두 명제

[그림 4] 한국인의 연령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각 항목에 동의, 매우 동의하는 사람의 비중.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에 전자는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후자는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더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내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나 “내 직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와 같이 일자리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이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느끼나 젊은 층이 근소하게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표 2〉와 〈표 3〉을 통해 다른 나라 시민들과 비교해 보면 탄소 저감 정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제와 탄소 감축 정책은 “내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더 많이 동의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개국 시민들에게서 해당 명제에

대한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반면에 〈표 3〉에서처럼 탄소 감축 정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시민과 한국인 모두 고령층이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시민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해당 명제에 유의미하게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직접적으로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을 세대 간 정의 차원에서 질문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젊은 근로자(55세 미만)보다 고령 근로자(55세 이상)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인뿐 아니라 다른 국가 시민들도 젊은 층이 더 동의한다. 다만 한국인은 청년층

[표 2] 탄소 감축 정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3.041	1.102	1.38		3.146	1.036	3.12*	A)C
35~54(B)	3.075	1.096			3.053	0.945		
55+(C)	3.057	1.062			3.004	0.941		

*** p<0.001, ** p<0.01, * p<0.05, +p<0.1.

주: 탄소 감축 정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3] 탄소 감축 정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3.411	1.108	104.65***	C)A,B B)A	3.250	1.046	1.44	
35~54(B)	3.611	1.065			3.317	0.977		
55+(C)	3.681	1.041			3.348	0.955		

*** p<0.001, ** p<0.01, * p<0.05, +p<0.1.

주: 탄소 감축 정책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4] 탄소 감축 정책은 “내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2.504	1.179	0.50		2.735	1.116	2.94+	A)C
35~54(B)	2.519	1.146			2.642	1.031		
55+(C)	2.500	1.117			2.586	0.974		

*** p<0.001, ** p<0.01, * p<0.05, +p<0.1.

주: 탄소 감축 정책은 “내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5] 탄소 감축 정책으로 “내 직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2.461	1.165	1.69		2.624	1.061	0.34	
35~54(B)	2.429	1.129			2.579	1.030		
55+(C)	2.425	1.085			2.578	1.034		

*** p<0.001, ** p<0.01, * p<0.05, +p<0.1.

주: 탄소 감축 정책으로 “내 직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6] 고령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2.984	1.059	308.02***	A)B,C B)C	3.098	0.980	11.03***	A)B,C
35~54(B)	2.717	1.087			2.869	1.017		
55+(C)	2.480	1.122			2.831	0.984		

*** p<0.001, ** p<0.01, * p<0.05, +p<0.1.

주: 고령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으로, 1은 걱정하지 않음, 4는 매우 걱정됨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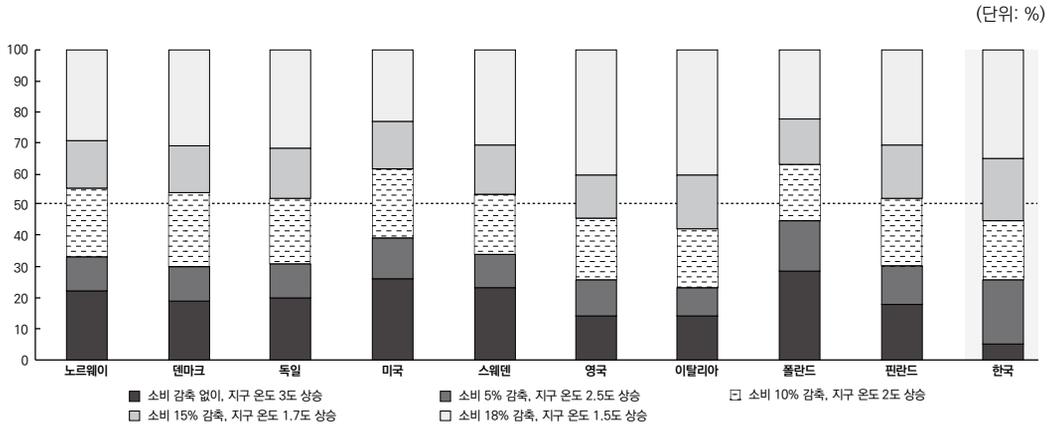
(35세 미만)과 중장년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중장년과 고령층 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 전체 10개국 시민들은 중장년과 고령층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 소비 감축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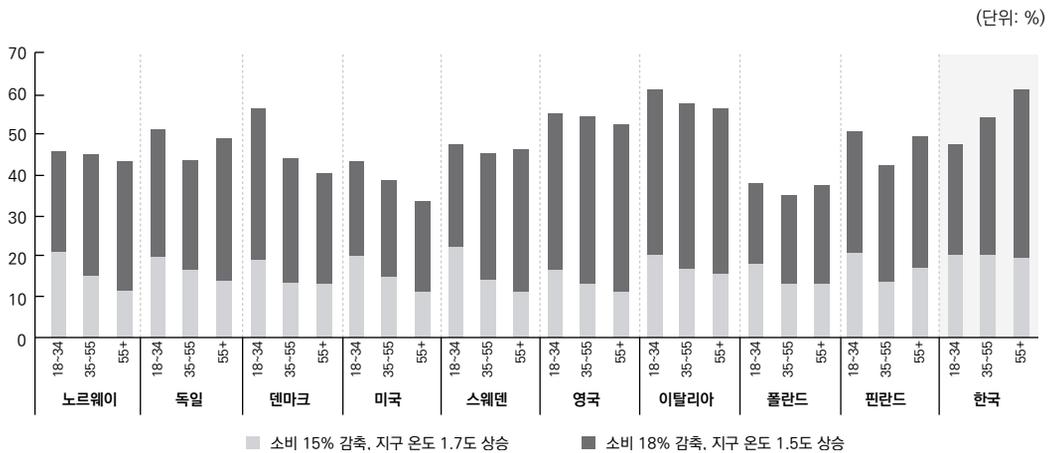
한국인들은 자신의 행동 변화 중 하나로, 소비를 줄여 지구온난화 추세를 늦추는 것에도 우호적이다. [그림 5]에서 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줄일 수 있는 연간 소비량에 대한 질문에 응답 범주 중 가장 많은 수준의 감축인 연간 소비량의 18%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이 34.9%로 이탈리아(40.6%), 영국(40.3%)에 이어 많은 편이다. 연간 소비량의 15% 이상(15%, 18% 감축 포함)을 줄일 수 있다

[그림 5] 10개국 시민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간 소비량 감축 의향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그림 6] 10개국 시민의 연령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간 소비량 감축 노력: 연간 소비량을 15%, 18%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주: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이 설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간 소비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연간 소비량을 15%, 18%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는 응답은 54.9%로 이탈리아(57.8%)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대체로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조사 대상 10개국은 젊은 층이 더 많은 소비 축소 의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고령자들이 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비 감축 의사가 가장 강한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탈리아에서는 18세 이상 34세 미만 응답자의 60.96%(15% 감축: 20.44%, 18% 감축: 40.52%), 55세 이상은 56.4%(15% 감축: 15.5%, 18% 감축: 40.9%)가 연간 15% 이상의 소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이와 달리 55세 이상이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18세 이상 34세 미만 응답자의 47.52%(15% 감축: 20.26%, 18% 감축: 27.26%), 55세 이상은 60.9%(15% 감축: 19.3%, 18% 감축: 41.6%)가 연간 15% 이상의 소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라. 세대 간 정의와 소비 감축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상기 문항에 대해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는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응답 환경 변화에 따라 응답이 어떤 차

[표 기]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의 연간 소비량 감축 의향 문항 구성

구분	집단 1(기준선)	집단 2(국가 간 정의)	집단 3(세대 간 정의)
사전 질문		(q41_Arm2_1)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6톤입니다. 이는 연간 9.5톤을 배출했던 2000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수준은 세계 1인당 연간 평균 배출량(4.7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41_Arm3_1)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세대의 대표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구온난화가 이전 세대의 삶보다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빨리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연간 소비량 감축 의사 질문	(q41_Arm1)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이 설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간 소비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q41_Arm2_2)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이 설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간 소비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q41_Arm3_2)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이 설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간 소비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의 조사표를 저자가 재구성함.

[표 8]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명제에 대한 연령 집단별 차이

(단위: 점)

연령 구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18~34(A)	3.677	1.172	61.89**	A)B,C B)C	3.642	1.065	0.12	
35~54(B)	3.369	1.216			3.620	1.024		
55+(C)	3.276	1.284			3.668	0.984		

*** p<0.001, ** p<0.01, * p<0.05, +p<0.1.

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5는 매우 동의함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모름'은 무응답으로 처리함.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회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로 할당된 세 집단은 연간 소비량 감축 의사와 관련해 다음의 <표 7>과 같이 상이한 응답 환경에 놓였다. 첫 번째 집단은 연간 소비량 감축 의사에 대한 하나의 질문에만 응답하고, 두 번째 집단은 국가 간 정의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이후에, 세 번째 집단은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이후에 연간 소비량 감축 의사에 응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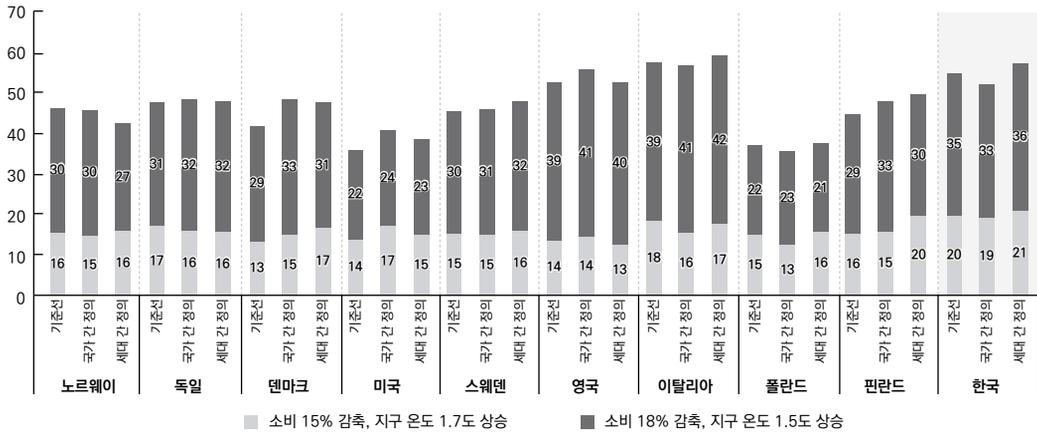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이 글의 관심인 세대 간 정의에 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인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기성세대의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조사 대상 10개국에서 젊은 층일수록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성세대의 책임

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강하게 인식해서인지 한국인들은 세대 간 정의 관련 문항에 응답한 이후에 소비 감축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림 7>과 같이 노르웨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의 시민들은 세대 간 정의에 대해 응답한 이후에 더 많은 소비 감축 의사를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간 정의에 관해 응답한 이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국가마다 전체 평균보다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그렇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국가 간 정의에 응답한 후에는 오히려 소비 감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만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평균적으로 감축에 적극적이어서 상황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림 7] 10개국 시민의 연령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간 소비량 감축 노력: 연간 소비량을 15%, 18%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단위: %)



주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9] 상황별 소비 감축 수준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점)

분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F 검증	사후검증
기준선(A)	3.220	1.498	5.50**	A(B,C)	3.692	1.196	0.63	
국가 간 정의(B)	3.296	1.481			3.680	1.158		
세대 간 정의(C)	3.284	1.482			3.748	1.183		

*** p<0.001, ** p<0.01, * p<0.05, +p<0.1.

주: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이 설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연간 소비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은 소비 감축 없이 지구 온도 3도 상승, 5는 소비 18% 감축, 지구 온도 1.5도 상승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임.

출처: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SCOaPP-10)", de la Porte et al., 2024,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4년 ‘10개국 사회 변화와 시민 의식, 공공 정책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비교 맥락에서 한국인의 기후변화와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때 기후변화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세대 간 정의가 주요 화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중심으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최근 진행된 기존 조사들에서도 지적된 것처럼(갤럽, 2022; 황주연 외, 2023) 한국인들은 기후변화를 다른 어떤 사회 변화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민을 걱정하는 이들의 비중은 현저히 적은 데 비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막대한 재정을 들이는 이탈리아인들보다도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한국인 중에서도 고령층이 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기존 조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갤럽, 2022; 황주연 외, 2023). 하지만 척도를 달리하여 기후불안을 질문한 경우에는 청년층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채수미 외, 2024).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 한국의 청년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청년층의 위기의식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인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연령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이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연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연령에 따라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과 관련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 한국인들은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력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층은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데 많이 동의한다는 것이다.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에 대해 다른 나라 시민들은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청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령자들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 저감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에 대해서도 한국의 청년은 물론 다른 조사 대상국 청년들도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인들은 소비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 추세를 늦추는 것에도 우호적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소비 감축에 대한 의향이 다른 조사 대상 10개국보다 높은 가운데, 고령자들이 더 적극적인 소비 축소 의향을 보이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성세대 혹은 고령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만큼 고령자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소비 감축과 관련해서도 한국인들이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세대 간 정의에 관해 응답한 이후에 근소하게 더 소비를 줄일 의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다른 10개국 시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은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높은 가운데,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편 스스로 소비를 줄여 기후 위기를 늦추려는 의지도 강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높은 기후변화 인식 수준과 소비 감축 의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아울러 모든 세대가 고령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고령자들 스스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변화 노력에 적극적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토양이 되리라 생각한다. ㉞

참고문헌

갤럽. (2022). 기후 변화 관련 인식, WWS(WIN World Survey) 다국가 비교 조사. **갤럽리포트 G20200 305**.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89>

기상자료개방포털. (n.d.). 열대야일수. <https://data.kma.go.kr/climate/tropicalNight/selectTro>

picalNightChart.do

미국 해양대기청. (n.d.). Trends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CO2). <https://gml.noaa.gov/ccgg/trends/global.html>, <https://gml.noaa.gov/ccgg/trends/global.html>

손철, 산디아. (2012). 연령별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국토연구, 74**. 221-232.

질병관리청. (n.d.).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205030102&bid=0004&&cg_code=C01

채수미, 김혜윤, 이수빈. (2024).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44**(1). 245-267.

황주연, 김종희, 권호장, 황승식, 김효은, 박성우, 이영주, 안윤진. (2023). 2022년 기후보건 대국민 인식 조사. **주간 건강과 질병, 16**(21): 635-651.

de la Porte, C., Im, Z.J., Sacchi, S., O'Reilly, J., Shin, Y.K., Leschke, J., Citi, M., Ejrnæs, A., Hunt, W., Jensen, M.D., Sch?tze, C., & Verdin, R. (2024).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 (SCOaPP-10)'

Gibbons, E. D. (2014). Climate change, children's rights, and the pursuit of intergenerational climate justice. *Health & Hum. Rts. J.*, 16, 19.

Gonzalez-Ricoy, I., & Rey, F. (2019). Enfranchising the future: Climate justice and the representation of future generation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0*(5), e598.

Page, E. (1999).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climate change. *Political Studies, 47*(1), 53-66.

Page, E. A. (2007). Fairness on the day after

- tomorrow: justice, reciprocity and global climate change. *Political Studies*, 55(1), 225–242.
- Page, E. A. (2008). Distributing the burden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tics*, 17(4), 556–575.
- Sanson, A. V., & Burke, S. E. (2020). Climate change and children: An issue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Children and peace: From research to action*, 343–362.
- Schuppert, F. (2011).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Environmental Politics*, 20(3), 303–321.
- Skillington, T. (2019). *Climate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Routledge.
- Johansson, H., Khan, J., & Hildingsson, R. (2016). Climate change and the welfare state: Do we see a new generation of social risks emerging? *In Sustainabil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p. 94–108). Routledge.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in 10 Countries

Ko, Hye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how Koreans perceive climate change and related policy responses, drawing on data from “Societal Challenges, Public Opinions, and Public Policies in 10 Countries,” a 2024 survey study conducted by de la Porte et al. Given that,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unfold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 topic of global interest, this article explores how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nd related policies vary across different age groups. Korean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than other social issues, with older Koreans showing even greater concern. While young adults in Korea remain highly concerned, they tend to view themselves as more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carbon reduction policies than older adults perceive themselves to be. Koreans are as willing to slow global warming by reducing their consumption as they a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In Korea,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belief that the older generation is more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while shared across different generations—is more strongly endorsed by older adults themselves, who are thus highly motivated to make necessary changes. This suggests that Koreans take intergenerational justice seriousl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which creat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